

## 메타분석을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이 숙 영  
전주대학교

이 윤 주<sup>†</sup>  
삼성그룹상담실

정 혜 선  
전주대학교

본 연구는 부모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1990년-2001년의 학위논문 22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물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대상 논문들의 전체 평균효과크기는 .73으로 국내에서 실시되는 부모교육의 효과는 비교적 큰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연령이나 특성이 혼합된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 교육의 평균 효과크기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교육의 효과크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컸다. 셋째, 부모교육의 효과에서 부모 자신의 변화가 자녀 쪽의 변화나 부모자녀 관계 변화에 비해 더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넷째, 피교육생의 수에 있어서는 13-20명으로 실시될 때 가장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 실시된 부모교육이 널리 공인된 프로그램들 보다 더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부모교육의 효과를 메타분석 방법을 통해 통합해보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변인들을 설정하여 효과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부모교육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추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안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의미있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 부모교육, 메타분석, 효과크기

---

이윤주는 삼성그룹상담실에 근무하고 이숙영, 정혜선은 전주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음.

<sup>†</sup> 교신저자 : 이 윤 주, (100-110)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8-9 중앙빌딩3층 삼성상담실,  
전화 : 02-729-9073/017-289-4688 E-mail : happyhelper@hanmail.net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도전은 아동과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부모에게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요구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가정에서 올바르게 양육, 지도하기 위해 부모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어온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으며(Fine, 1988), 최근 들어 저 연령층의 아동에게도 확산된 따돌림, 인터넷중독과 같은 심각한 문제의 예방과 지도의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국내의 교육 및 상담분야의 전문가들은 외국의 여러 가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적용해오기도 하고 우리 문화에 맞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부모교육의 학문적, 실천적 자리매김을 해오고 있다. 현재 외국에서 도입하여 우리나라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는 대중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효율적 부모를 위한 체계적 훈련(S.T.E.P.: Systemic Training For Parenting), 부모효율성 훈련(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적극적 부모역할훈련(A.P.T.: Active Parenting Training)등이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Empowering Parent Training: E.P.T.)’ 및 ‘부모에게 약이 되는 프로그램(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1999)’ 등이 있다(한국부모교육학회 편, 1997). 이러한 공인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외에도, 장애아 부모, 유아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자녀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등 특수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부모교육(신혜영, 1997; 정성란, 1998)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장재홍, 김태성, 김현주, 이호준, 2000)등 부모교육의 대상과 내용은 보다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은 이론적 배경 및 자녀의 연령, 대상자, 장소, 목적에 따라 나누어볼 수 있다. 부모교육은 이론적 배경에 따라 크게 민주적 부모교육, 인본주의적 부모교육,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E.P.T.), 부모효율성 훈련(P.E.T.), 효율적 부모역할을 위한 체계적 훈련(S.T.E.P.), 적극적 부모역할훈련(A.P.T.), 행동수정이론에 따른 부모교육, 교류분석이론에 따른 부모교육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연미희, 김진숙, 2001). 또한 자녀의 연령별로는,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등 특정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부모교육 대상자에 따라서는 부모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비전문가 부모를 훈련하여 준 전문가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예비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실시장소에 따라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중심 부모교육, 교육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중심 부모교육으로 구분된다(이원영, 1986). 부모교육의 목적은 이론적 배경과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부모역할 및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효과적인 부모역할, 의사소통,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훈육방법 등을 중심내용으로 기술훈련, 자기인식증진, 문제해결 및 정보나누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연미희, 김진숙, 2001; 이영숙, 1999; 이재연, 김경희, 1989).

이와 같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들은 다양한 종속변인을 설정하여 그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우선, 부모교육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로서, P.E.T.의 경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태도와 애정 수용적 태도로의 변화가 있었고(공병진, 1992; 노은경, 1998; 장기순,

1994), A.P.T.의 경우에도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유자, 2000; 임미숙, 1998). 윤미정(1998)은 S.T.E.P.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됨으로써 자녀양육에 보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E.P.T.의 경우, 전체적인 양육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수용적 양육태도(공병진, 1992; 황정희, 1997)와 독립심 권장태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영숙, 1999; 장기순, 1994; 황정희, 1997).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부모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이영분(1983)의 경우 P.E.T.가 의사소통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박정자(1998), 안유자(2000), 홍경자(1998)의 경우 A.P.T.교육을 받은 어머니들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의미 있게 증진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박재희(1997)는 비행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A.P.T.를 실시한 결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의미 있게 증진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부모교육이 부모의 교육관과 자녀지도방법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부모-자녀관계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권춘기, 1993; 양경화, 1999).

부모교육의 효과를 교육과정에 참가한 부모들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변화로서 알아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권춘기(1993)의 경우 P.E.T. 피교육자의 자녀들은 정서적 안정성과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성이 점차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연미희(1994)의 경우 P.E.T.가 부모-자녀 관계에서 어머니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적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부모-자녀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공격적 언어표현의 감소에도 부분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부모교육으로 인해 부모 자신에게 나타난 효과들을 살펴본 연구의 경우, P.E.T.는 피교육자의 성격특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있어서 명령 지향적인 언어통제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이혜란, 1995: 황정남, 1999에서 재인용), A.P.T.의 경우 부모의 자아 존중감 증진에 효과가 있고(박정자, 1998),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인식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증명되었다(박재희, 1997). S.T.E.P.의 경우 어머니의 인내심을 기르고 부드러운 말씨를 사용하게 된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윤미정, 1998), E.P.T.의 경우에도 부모의 성격과 자아실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이 보고되고 있다(양경화, 1999).

이상의 대중적으로 알려진 공인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외에 특정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의미있는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양영숙(2001)은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아 수용도와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윤주영(2000)의 연구는 현실요법을 바탕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내적 통제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집중적으로 대처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오세철(1995)은 장애아 부모를 대상으로 뇌성마비아 양육문제에 대한 대처전략 프로그램이 부모의 대처행동,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 능력, 스트레스 감소 등 부모의 개인 내적인 변화요인에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모교육 효과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태도 및 부모자신의 성격특성이나 자존감 등의 내적인 변화, 부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행동변화 등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Seitz(1976)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프로그램의 단기적 또는 장기적 효과를 일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이 어떤 성격의 부모 및 아동에게 가장 효과가 있으며, 어떤 종류의 교수, 학습방법이 최적의 효율성을 산출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한국부모교육학회, 1997).

부모교육이 운영되는 방식은 프로그램의 유형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집단상담이나 교육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교육 회기수는 대부분의 경우 8-9주(E.P.T., 5-8주: P.E.T., A.P.T., 8주: 민주적 부모교육, 8-12주: 행동수정에 의한 부모교육, 12주: S.T.E.P., 9주)를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으며(연미희, 김진숙, 2001), 교육인원의 수의 경우, 8-12명, 10-15명, 10-20명 등의 소집단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와 20명 이상의 중·대집단으로 운영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도자의 경우, 공인된 프로그램의 경우 각 프로그램별로 지도자 훈련과정을 마친 전문지도자에 의해 실시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내 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들(김계현, 이윤주, 왕은자, 2001; 김수진, 2001; 박소연, 1993; 임지선, 2001)의 경우, 집단의 유형, 집단구성원의 특성, 집단의 크기, 집단회기 수, 1회기 실시시간 등에서 집단상담 효과의 의미있는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집단의 형태로 운영되는 부모교육의 효과를 집단운영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은 향후 부모교육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방식 및 체제를 정비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경험적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국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연구들은 그

효과들이 개별적인 연구단위로 보고되고 있어, 부모교육의 전체적인 효과 및 다양한 유형과 목적에 따른 효과의 차이에 대해 기능해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사용하여 부모교육 효과연구들을 종합해보고, 부모교육의 효과가 유형이나 목적, 기타 운영과 관련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축적된 국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연구 가운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메타분석의 조건에 적합한 연구결과들을 선정, 종합하고, 부모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측되는 변인을 설정하여 각 변인에 따른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부모교육의 효과를 부모교육의 목적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변인들(교육회기 수, 피교육생의 수, 피교육생 자녀의 특성, 실시장소, 운영형태, 지도자유형)을 설정하여 각 변인별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안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지침을 제시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살펴본다

연구문제 2 :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종속 변인)을 유목별로 분류하여 목적에 따른 평균효과크기를 산출, 비교해본다

연구문제 3 :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유형별 평균효과크기를 산출, 비교해본다

연구문제 4 :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변인(교육회기 수, 피교육생의 수, 피교육생

자녀의 특성, 실시장소, 운영형태, 지도자유형)에 따른 평균효과 크기를 측정, 비교해본다.

## 방 법

### 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연구에 관한 학위논문은 자료수집의 범위를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최근 12년간의 국

내 학위논문으로 제한하였다. 먼저, 인터넷으로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를 방문하여 부모교육, 부모훈련이라는 주제어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연구물들을 검색하였다. 둘째,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목록화한 논문들의 제목을 검토하여 메타분석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논문들을 대상 논문으로 1차 선정하였다. 셋째, 자료로 선정된 부모교육 효과연구 48편중에서 통제집단을 사용하지 않거나, 연구설계에 대한 정보와 사후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원수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와

표 1. 개별 연구물의 특징 및 효과크기

번호	연구자	발행 연도	교육 유형	교육목적 (종속변인)	대상 자녀	인원	회기수 /시간수	ES 수	ES
1	안유자	2000	A.P.T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 의사소통	혼합	31	8/ 20	6	1.08
2	송용호	2000	A.P.T	어머니의 자아개념, 자녀의 자아개념	아동	34	8/ 20	15	0.54
3	황정남	1999	P.E.T	어머니의 언어통제	아동	20	8/ 24	3	2.44
4	박정자	1998	A.P.T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자녀의 의사소통	청소년	30	8/ 20	3	0.50
5	김서규	1998	P.E.T	자녀의 정적, 지적평가 특성	미상	56	8/ 24	3	0.93
6	노은경	1998	A.P.T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 유아행동지각	미상	10	8/ 20	10	0.67
7	임미숙	1998	A.P.T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 자아존중감	혼합	16	8/ 16	4	2.25
8	정기산	1997	A.P.T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 자녀의 자아존중감	청소년	10	6/ 15	8	0.85
9	오세덕	1995	P.E.T	부모의 불안	미상	11	8/ 24	22	0.51
10	오세철	1995	대처전략 훈련	부모의 대처행동	장애 영유아	16	10/ 20	11	1.17
11	양영숙	2001	MBTI 활용	어머니의 자아수용도	영유아	20	6/ 18	2	1.09

표 1. 계속

번호	연구자	발행연도	교육유형	교육목적 (종속변인)	대상 자녀	인원	회기수 /시간수	ES 수	ES
12	장영진	2000	청소년기자녀를 위한 교육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 의사소통	청소년	10	10/ 15	2	1.33
13	윤주영	2000	RT 바탕	어머니의 내적통제, 스트레스 대처방식	미상	9	8/ 16	7	0.53
14	김주숙	1999	S.T.E.P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 자녀의 친사회적행동발달	영유아	37	9/ 18	4	0.46
15	김명숙	1999	S.T.E.P	자녀의 자아개념	영유아	20	8/ 16	6	0.91
16	김문정	1999	정서지능 교육	유아의 정서지능발달	영유아	15	10/ 30	4	1.29
17	윤미정	1999	S.T.E.P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	영유아	12	9/ 22	5	0.51
18	양경화	1999	E.P.T	어머니-자녀관계 부모의 성격, 자아실현	혼합	34	4/ 12	27	0.68
19	박분례	1997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	자녀의 기본생활습관, 자녀의 성차, 자녀의수	영유아	25	10/미상	25	0.35
20	장기순	1994	P.E.T + S.T.E.P + 인간관계훈련 (이형득,1983)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	영유아	17	7/ 14	6	0.71
21	오영희	1994	가정방문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	영유아	18	12/ 20	12	0.60
22	최경희	1993	인간중심/ 의사소통훈련	부모의 의사소통태도 자녀의 행동지각	미상	34	8/ 24	6	0.56

- 주. 1. 교육목적(종속변인) : 개별연구에서 부모교육의 효과를 측정된 변인  
 2. 대상자녀 :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수혜한 부모(피교육자들)의 자녀의 특성  
 3. 교육인원 : 부모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인원, 즉 피교육생수  
 4. ES수 : 개별연구의 종속변인(측정변인)별로 산출된 효과크기의 수

국회도서관에 미소장된 논문과 국회도서관 DB작업으로 인해 복사가 불가능한 논문을 제외한 22편을 최종적인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대상 논문들의 주요한 특징과 논문별 평균효과크기를 표 1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분석대상논문 내용 중에서 국문초록과 연구결과 부분을 참고하였으며, 초록이 없는 논문의 경우 결론 및 논의 부분을 초록

대신 연구대상 자료로 사용하였고, 결론 및 논의 부분에서 자료가 미약한 경우 연구방법부분을 추가로 참고하였다.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종속변인별로 효과크기의 산출을 위해 개개의 연구논문에서 제시된 평균과

표준편차, 피험자 수를 사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분산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분산의 합동추정치를 구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효과크기란 어떤 연구대상에서 실험자가 의도하는 실험조치가 가해졌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Z 척도로 환산해 놓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유형 및 운영과 관련된 변인들을 유형화하여 목적(종속변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회기 수, 피교육생 수, 피교육생 자녀의 특성, 실시장소, 운영형태, 지도자유형 등을 코딩하여 입력하였고,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평균,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평균,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표준편차,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표준편차 등을 조사, 입력하였다. 이때, 종속변인이 하위척도를 가진 경우 각각을 분리해서 측정변인으로 만들고, 측정변인에 대한 각각의 효과크기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에 따라 각 변인별로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변인의 수에 따라 *t-test* 혹은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교육 유형과 피교육생 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 결 과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 전체의 평균효과크기는 .73이다. 이는 정상분포곡선 하에서 50%에 해당되는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가 통제집단에서는 77%에 해당되며, 통제집단의 피교육생 중에서 실험집단의 피교육생들의 평균점수 이상의 좋은 점수를 받은 경우는 약 23%정도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국내에서 연구된 부모교육의 효과크기는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효과크기를 알기 쉽게 도식화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부모교육의 효과와 관련된 변인별로 평균효과크기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각 변인별 평균 효과크기 비교에서는 각 변인별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를 미상으로 분류하여 제외하였다.

종속변인을 부모와 자녀의 변화를 기준으로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평균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 혹은 자녀에 대한 의사소통 변인에서 가장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부모의 개인 내적 변화가 그 다음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를 부모가 보고한 경우,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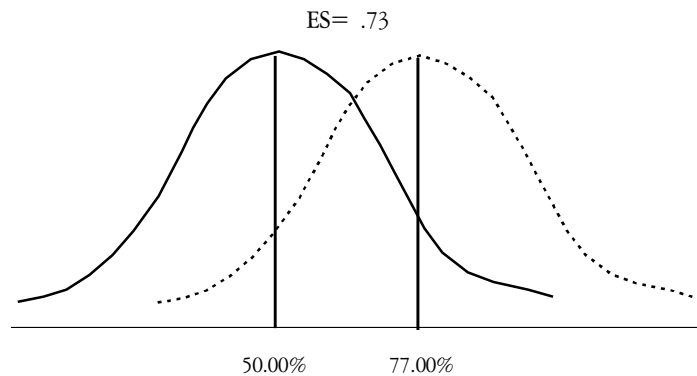


그림 1. 정상분포곡선으로 본 전체 평균효과크기

표 2. 종속변인별 평균효과크기

종속변인	효과크기의 사례수	평균효과크기	표준편차	F
1.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	47	0.97	0.80	3.11*
2. 자녀의 변화 및 부모자녀관계	32	0.62	0.40	
3. 부모의 개인 내적 변화	70	0.73	0.90	
4. 부모가 지각한 자녀 변화	42	0.53	0.41	
계	191	0.73	0.73	1 > 2, 4

주. 1. \*  $p < .05$

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에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 어머니의 의사소통, 어머니의 통제, ‘자녀의 변화’에는 자녀의 의사소통, 자녀의 자아개념, 자녀의 자아 존중감, 부모자녀관계의 변화,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변화’에는 부모에 의해 지각된 자녀의 기본생활습관, 자녀의 정서지능변화, 자녀행동, 자녀에 대한 정적/지적 평가 특성, 자녀의 발달수준, ‘부모의 개인 내적 변화’에는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자아 존중감, 통제소재, 불안, 대처행동, 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이 포함되었음.

가 자신의 변화를 보고한 경우와 부모가 자녀의 변화를 지각한 바를 보고한 경우의 효과크기는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효과크기는 자녀의 변화 혹은 부모-자녀관계 변화에 대한 효과크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F=3.11, p<.05$ ).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의 효과가 부모교육의 직접적 교육 대상인 부모의 변화에서 보다 현저하게 드러나며, 이 중에서도 특히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에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짐을 짐작하게 한다. 반면 부모교육의 결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2차적 변인인 부모자녀 관계 혹은 자녀의 변화는 모두 부모 자신의 변화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대상 논문들에서 밝힌 부모교육의 유형을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평균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를 표 3으로 제시하였다. 부모 자녀간 성격이해라는 목적을 가진 MBTI 활용 부모교육, 뇌성마비아 부모의 대처전략 훈련, 자녀들에게 책임감 길러주기를 목표로 하는 RT(현

실요법)활용 부모교육, 정서지능을 위한 부모교육으로 구성된 ‘특정목적을 위한 교육’의 평균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들의 평균 효과크기는 청소년자녀, 유아자녀를 위해 구성된 부모교육을 포함하는 ‘특정 대상을 위한 교육’과, 부모교육, 가정방문 부모교육, 소집단 부모교육으로 제시되어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기타 일반 교육’의 평균 효과크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컸다. 한편, P.E.T., A.P.T., S.T.E.P., E.P.T.와 같은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실시되며, 지도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경우 전문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공인된 프로그램’의 평균효과크기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교육생 수를 기준으로 3등분하여 효과크기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13명에서 20명 사이의 인원인 운영된 부모교육이 효과크기 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3. 부모교육 유형별 평균효과크기

종속변인	효과크기의 사례수	평균효과크기	표준편차	F
1. 공인된 프로그램	116	0.76	0.86	2.95 *
2. 특정 목적을 위한 교육	24	1.00	0.45	2 > 3, 4
3. 특정 대상을 위한 교육	27	0.43	0.42	
4. 기타 일반 교육	24	0.62	0.35	
계	191	0.73	0.73	

주. \*  $p < .05$

표 4. 피교육생 인원별 평균효과크기

피교육생 수	효과크기의 사례수	평균효과크기	표준편차	F
1. 12명 이하	60	0.59	0.44	6.43**
2. 13명-20명	68	0.97	0.99	2 > 1,3
3. 21명이상	63	0.58	0.55	
계	191	0.73	0.73	

주. \*\*  $p < .01$

표 5. 피교육생의 자녀특성별 평균효과크기

자녀 구분	효과크기의 사례수	평균효과크기	표준편차	F
1. 영유아	64	0.59	0.43	2.65 *
2. 아동	18	0.85	0.98	4 > 1
3. 청소년	15	0.81	0.39	
4. 혼합	35	0.93	0.88	
계	132	0.77	0.66	

주. \*  $p < .05$

표 5에서는 피교육생의 자녀의 특성별로 부모 교육프로그램의 평균효과크기를 비교하였다. 표 6과 같이 피교육생 자녀의 연령별로 부모교육의 평균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자녀의 연령대가 다양하게 혼합된 부모교육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청소년의 평균효과크기가 비슷한 정도로 그 뒤를 이었고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평균효과크기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녀의 연령대가 혼합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평균효과크기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크기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 부모교육 실시 장소별 평균효과크기

교육실시장소	효과크기의 사례수	평균효과크기	표준편차	F
사회단체, 기관	18	0.92	0.47	2.20
유치원, 학교	110	0.66	0.53	
가정	12	0.60	0.36	
계	140	0.69	0.52	

주.  $p=.34$

( $F=2.65, p<.05$ ).

한편 부모교육 실시장소와 교육회수별 평균효과크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변인은 부모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평균효과크기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부모교육이 실시된 장소별로 분류한 경우, 유치원 혹은 학교에서 실시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는 부모 교육을 어디에서 실시하였느냐에 따라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6에 의하면 사회단체 혹은 사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의 평균 효과크기가 가장 크고 유치원이나 학교, 가정 방문으로 실시된 경우의 효과크기는 이에 비해 눈에 띄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인위적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의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에 비해 자발적인 참여가 더 많은 편인 사회단체 혹은 기관에서의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경우 동기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에서는 부모교육 회기수를 나누어 각 평균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8회기로 진행된 부모교육 연구는 기타 회기수를 모두 합한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7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회기수가 많을수록 평균효과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바에 의하면 6회기 교육과 10회기 교육은 8, 9회기 교육보다 평균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밝혀져서 회기수와 교육효과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

표 7. 부모교육 회기수별 평균효과크기

회기수	효과크기의 사례수	평균효과크기	표준편차	F
4-6회기	37	0.74	0.69	0.21
8회기	85	0.77	0.91	
9-10회기	28	0.87	0.47	
계	150	0.78	0.79	

주.  $p=.63$

구가 축적되어야 보다 정확한 패턴을 메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밖에 부모교육을 담당한 지도자가 전문강사 자격을 득(得)한 전문강사인지 일반강사인지(전문강사 ES= .69, 일반강사 ES= .67,  $t=.13$ ,  $p=.90$ ), 부모가 혼합된 집단인지 모(母)로만 구성된 교육 집단인지(부모혼합 ES=1.08, 모 단일집단 ES=.71,  $t=1.20$ ,  $p=.23$ ), 소집단 교육인지 가정방문집단인지(소집단교육 ES=.74, 가정방문교육 ES=.60,  $t=.59$ ,  $p=.34$ )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면관계상 결과를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는 부모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1990년-2001년의 학위논문 22편을 대상으로 191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부모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별 평균효과크기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한 다음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에 따른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부모교육이 각 기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는데 비해 부모교육에 대한 효과성 연구는 부족한 감이 있다. 서양의 경우 이러한 부모교육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시도가 있어 왔지만(Ceder, 1985; Cedar & Levant, 1990; Serketich & Dumas, 1996), 국내의 경우 부모교육의 효과성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는 최초로 부모교육의 효과를 메타분석 방법을 통해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자면 첫째, 본 연구의 대상 논문들의 전체 평균효과크기는 .73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는 국내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들의 전체 평균효과크기 .99(김계현, 이윤주, 왕은자, 2002)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국외의 부모교육 메타분석 연구(Cedar & Levant, 1990: 373-384)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큰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내에서 실시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는 비교적 큰 편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사전사후 검사로 그 변화를 측정된 종속변인을 크게 부모와 자녀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평균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부모 자신의 변화가 자녀 쪽의 변화나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에 비해 더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에 대한 선행연구가 밝힌 결과와도 일치한다(Cedar & Levant, 1990). 부모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의 자녀 교육 행동의 변화로서 일차적으로 부모 자신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자녀와의 관계, 나아가 자녀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따라서 4-10주 정도의 교육이 종료된 직후에 측정되는 사후 검사 점수로는 자녀의 변화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검증할 수 있기 위해 추후 평가 부분이 설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피교육생 부모들의 자녀 특성별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연령대가 혼합된 부모 교육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교육의 효과크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의 내용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어려울 가능성과

둘째, 영유아의 경우 그 발달 특성상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존감, 자아개념 등의 심리적인 부분 보다는 건강과 섭생의 돌봄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양육된다는 현실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증진이나 자녀 행동의 효과적 수정을 위한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 아동의 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화된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의 구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를 부모대상 프로그램의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평균 효과크기 .93), 자녀문제에 대해 비교적 동일한 경험이나 유사한 관심을 가진 동질적인 부모집단보다는 자녀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가진 혼합형태의 부모집단이 참가부모에게 자녀문제에 대한 새롭고 다각적인 시각과 다양한 학습 효과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피교육생의 수를 사례수에 따라 3등분하여 살펴본 결과, 12명이하나 21명이상으로 운영된 경우보다 13-20명 사이로 운영될 때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개념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효과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집단구성원의 수가 6-15명일 때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고한 박소연(1993)의 결과와 우울증에 대한 인지행동적 집단상담 효과를 메타분석한 결과 6-9명으로 집단을 구성한 경우가 높은 효과를 나타낸 김수진(2001)의 결과와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교육의 경우 집단상담의 형태로 운영되거나 일반 집단상담이나 집단치료에서와 같이 상담이나 치료적 요소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 내용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집단상담보다는 많은 인원의 집단에서, 그러나 집단상담의 요소가 발휘되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은 아닌 중간 정도의 크기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교육회기수, 실시장소, 운영형태, 지도자 유형에 따라 평균효과크기를 비교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통계적 유의도를 갖지는 못했으나, 평균효과크기를 살펴보면 회기 수에 있어서는 9-10회기, 실시장소에 있어서는 유치원이나 학교보다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실시된 경우, 일반강사보다는 전문강사에 의해 진행된 프로그램, 모(母)단일집단보다는 부모혼합집단, 가정방문보다는 소집단으로 운영되는 집단교육에서 효과크기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 연구물에 사회단체에서 실시된 프로그램, 전문강사에 의해 진행된 프로그램 및 부모혼합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프로그램의 사례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보다 주의깊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모교육의 유형을 유목화하여 유형별로 평균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한 부모교육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공인된 프로그램들 보다 더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부모교육 유형별 피교육생의 수의 차이는 이러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교육생 수에 따라 살펴본 결과(표 4 참조), 13-20명 사이에서 가장 평균 효과크기가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공인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생수는 평균 23명으로서 특정목적의 교육의 평균인원 14명을 훨씬 상회하였다. 공인된 부모교육 프로그램(교육생수 평균=22.85명)과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교육생수 평균=19.75명)의 교육생수는 특정 목적(교육생수 평균=14.13명)이나 대상(교육생수 평균=14.52명)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교육생 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밝혀졌다( $F=8.91$

$p=0.00$ ).

즉 공인된 프로그램의 경우 평균 교육생수가 일반적 프로그램에 비해 더 크지만 평균효과크기에 있어서는 특정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타 프로그램의 것보다는 더 높았다는 점으로 볼 때(표 3참조), 공인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자체의 효과성은 결코 낮지 않지만 피교육생 수가 일반적으로 여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피교육생 수에 비해 많은 편이라는 점이 교육효과에 부정 영향을 주어 특정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에 비해 평균효과크기가 낮은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공인된 프로그램의 경우 기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비해 이론적 근거가 공고하며 프로그램 운영지도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연구를 위해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일반 프로그램에 비해 더 높은 효과성을 기대할 만하다. 따라서 피교육생수이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 보다 엄격히 통제되고 설계된 부모교육 연구결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유형별 효과적 측면은 보다 신중히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에 따른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집단 규모의 교육의 효과 부분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연구물 중 40명이 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단 한편이었다. 실제로 50명이 넘는 큰 규모의 부모교육이 드물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특강의 경우 단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단회성 대 집단 규모의 부모교육이 드물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대집단의 교육 효과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이러한 단회성 중·대 집단의 교육 효과와 소집단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가 비교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가 축적될 때 부모교육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 대상논문이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 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는 추수(follow-up) 평가에서 나타나는 효과크기를 산출하지 못하였다. 교육의 효과는 교육이 이루어진 직후의 성과로도 확인되어야 하지만 이후 실제 생활속에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지니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후 추수 평가가 포함된 보다 정교한 연구들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자체의 한계는 아니지만, 본 연구의 대상 논문들이 부모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이긴 하지만 각 프로그램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부모교육의 효과는 프로그램 유형과도 연결되지만 피교육생 수, 지도자의 자질과 경력,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과 내용 등이 얼마나 정확히 그 목적과 내용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등의 여러 가지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부모교육 효과연구물에서 제시된다면 추후의 메타분석을 통해 훨씬 더 풍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될 때 메타분석 연구의 목적에 보다 더 부합하고 메타분석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일려두기> \*표 논문은 메타분석의 분석대상 논문임

공병진 (1992). 부모효율성훈련(P.E.T.)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춘기 (1994). 부모효율성 훈련이 자녀지도 방법 및 자녀의 안정성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계현, 이운주, 왕은자 (2001). 국내 집단상담 성과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미간행 논문

\*김명숙 (1999).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문정 (1999). 부모교육의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서규 (1998). 부모역할훈련의 이원적 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진 (2001). 우울증에대한 인지-행동적 집단상담 효과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주숙 (1999). STEP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은경 (1998). 부모훈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행동 지각에 미치는 효과. 대구효성카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분례 (1997). 부모참여 및 교육을 통한 유아의 기본생활 습관 증진효과.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소연 (1993). 집단상담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재희 (1997). 십대의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이 비행청소년 가족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자 (1998). 적극적 부모역할(APT)훈련이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10대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용호 (2000).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아개념과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혜향 (2001). 의학. 간호학. 사회과학 연구의 메타분석법. 서울: 청문각

신혜영 (1997).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유자 (2000).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경화 (1999).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버지-자녀관계, 부모의 성격 및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영숙 (2001).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아수용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미희 (1994). 한국 부모에 대한 P.E.T.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성 평가.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연미희, 김진숙 (2001). 부모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오세덕 (1995). 부모역할 훈련프로그램과 부모의 자기이해 프로그램의 효과 비교. 전남대학

- 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철 (1995). 뇌성마비아 부모의 대처전략 훈련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희 (1994). 2세 유아를 위한 가정방문 부모 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정 (1999). STEP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주영 (2000). 현실요법을 바탕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내적 통제성 증대 및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분 (1983). 어머니 교육을 위한 부모자녀간의 갈등적 관계개선에 관한 실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 (1999).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자녀양육태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1986). 부모교육론. 서울: 교문사.
- 이원이 (2002). 학습전략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 김경희 (1989). 부모교육. 서울: 교문사.
- \*임미숙 (1998).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선 (2001).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인본주의적/인지 행동적 집단상담효과의 메타분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기순 (1994).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유치원 자모들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진 (2000). 청소년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홍, 김태성, 김현주, 이호준 (2000).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 2000 청소년상담연구 86, 1-58.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정기산 (1997). 부모훈련이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란 (1998).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랑을 심는 가족. '98 부모교육 사례연구(2). 제주: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
- \*최경희 (1993). 소집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부모교육학회 편 (1997). 부모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1999). 자녀 교육관 정립을 위한 부모학교 자료집. 교육부.
- \*황정남 (1999). 부모효율성 훈련이 어머니의 언어 통제유형에 미치는 효과.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희 (1997).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녀양육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 한국지역사회 교육협의회 모델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eder, R. B., & Levant, R. F. (1990).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8(4), 373-384.
- Ceder, R. B. (1985). *A meta-analysis of the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outcome*.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 Fine, M. J. (1988).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Matthew. M., & Kim. P. (1994). *Focal group psychotherapy*.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s, Inc.
- Michael, H. P. (1985). 현대의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부모용 지침서. (홍경자 역) 광주: 한국심리교육센터출판부.
- Mullen, B., Driskell, J. E., & Salas, E. (1998), Meta-analysis and the study of group dynamics. *Group Dynamics*, 2(4), 213-229.
- Serketich, W. J., & Dumas, J. E. (1996). The effectiveness of behavioral parent training to modify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 meta-analysis, *Behavior therapy*, 27(2), 171-187.
- Thomas, G. (1996). 효과적인 부모역할훈련 워크북. (김인자 역).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Thomas, G., & Judith, G. S. (1989). 부모역할 배워지는 것인가. (김인자 역).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원 고 접 수 일 : 2002. 6. 29  
수정원고접수일 : 2002. 8. 29  
게 재 결 정 일 : 2002. 9. 7

K C I



# The Effects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Through the Meta-Analysis

**Sook-Young Lee**  
Jeonju University

**Yoon-Joo Lee**  
Samsung Counseling Center

**Hae-Sun Jeong**  
Jeon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effects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which were reported in 22 theses during 1990-2001 through meta-analysis. For this, 191 effect sizes were calculated and mean effect size was analyzed and compared according to variables such as dependent variables, types of parent education, number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ildren, place of education, number of sessions, the types of program facilitator, and whether it was administered through small group or home-visi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mean effect size was found to be .73, indicating that parent education was highly effective in overall. When mean effect sizes were compared according to dependent variables included to measure the effect of each parent education, parents' self-improvement was found to be more affected than changes in children or parent-child relationship. Among the types of parent education program, programs developed for specific purpose were found to be more effective than authorized public programs. Also, programs including 13-20 participants and focusing on parents with children of different ages were found to be more effective. The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parent education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program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Key Words* : parent education, meta-analysis, effect size